

#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16년만의 드라마 복귀

한석규 SBS 사극 출연

배우 한석규(47)가 16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다.

한석규는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에서 왕 세종 역을 맡는다. 한석규가 드라마에 출연하는 것은 1995년 MBC TV '호텔' 이후 16년 만이다.

오는 9월28일 SBS를 통해 첫선을 보일 '뿌리깊은 나무'는 인기 작가 이정명의 동명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훈민정음' 반포 전 7일간 경복궁에서 벌어지는 집현전 학사 연쇄살인사건을 그린다.

극중 한석규와 카리스마 대결을 펼칠 노비 출신 겸사복 관원 강채운 역에는 장혁이 캐스팅됐다.

## “극장에 걸린 내모습 믿어지지 않아요”

‘마이 블랙 미니드레스’ 유인나



“예전에 지하철 역이나 건물 벽면에 걸린 스타 사진을 보면 저분들은 자기 사진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들까 늘 궁금했는데, 요즘에는 제 사진이 극장에 걸려 있으니 너무 신기해요”

유인나(29)는 아직도 자신의 인기가 실감이 나지 않는 듯했다.

2009년 MBC 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으로 데뷔해 최근 종영한 SBS 주말드라마 ‘시크릿 가든’으로 유명세를 탄 그는 요즘 연예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 하나다.

SBS ‘일요일이 좋다 - 영웅호걸’ 출연에 이어 이달부터는 ‘한밤의 TV 연예’ MC를 맡고 있고, 개봉을 앞둔 영화 ‘마이 블랙 미니드레스’에서는 윤은혜·박한별·차예련과 함께 주연을 꿰찼다. 또 최근 발매된 그룹 ‘허밍어반 스테레오’의 디지털 싱글 ‘넌 그날’에는 객원 보컬로 참여했다. 이 정도면 거의 전방위적 활동이라고 할 만하다. 최근 만난 유인나는 “요즘 너무 바빠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면서도 “하루에 인터뷰가 5개씩 잡혀 있을 때, ‘네가 나온 포스터 봤다’는 지인들의 문자가 쏟아질 때 너무 신기하다”며 눈을 반짝였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연예인이 꿈이었어요. 노래하는 걸 좋아해서 가수가 되고 싶었고, 말하는 걸 좋아해서 MC도 해보고 싶었죠. 그 꿈을 다 이루게 된 것 같아 너무 행복합니다.”

연기자로 얼굴을 알렸지만, 사실 유인나의 꿈은 가수였다. 1980년대를 풍미한 가수 민혜경의 무대를 보며 꿈을 키웠던 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기획사 문을 두드렸고 약 10년간의 연습생 생활 끝에 가수가 아닌 연기자로 데뷔한다. 공교롭게도 ‘가수 지망생’ 역이었다.

“가수 꿈 꾀 연습생 생활만 10년

MC·예능·영화...바쁘지만 행복

연기 편식 않는 팔색조 배우 되고파”

“지붕뚫고 하이킥”에서 제가 맡은 인나(그는 극중에서 실명으로 나왔다)는 온갖 고생 끝에 가수가 되는 인물이었죠. 마지막에 가수가 돼 무대에 서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여기서 꿈을 다 이루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기자로서 이름도 알리고 가수가 돼 무대에 서보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가수 활동을 해 볼 의향이 있는지는 질문에 그는 “배우로서는 얼마든지 노래할 수 있지만, 본격적으로 음반작업을 해 볼 생각은 아직 없다”며 웃었다.

‘하이킥’으로 이름을 알린 유인나는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 여주인공 라임(하지원)의 친구 아영 역을 맡아 연기자로서 입지를 다졌다. 밝고 명랑한 성격의 아영은 라임의 든든한 후원자가 돼 준 것은 물론, 김비서(김성오)와의 알콩달콩 연애담으로 드라마의 감초 역할을 톡톡히 했다.

“당시 촬영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다들 잠도 못자고 날씨도 추워서 고생 많이 했지만, 누구 하나 얼굴을 찡그리는 일이 없었죠. 덕분에 촬영도 무척 즐거웠어요.”

유인나는 “하이킥이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해 준 작품이라면, ‘시크릿 가든’은 저를 연기자로 자리잡게 해준 작품”이라며 ‘시크릿 가든’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24일 개봉하는 영화 ‘마이 블랙 미니드레스’에서 연극영화과 출신 취준생 민희를 연기한다. 민희 역시 ‘시크릿 가든’의 아영처럼 밝고 명랑한 캐릭터다.

유인나는 “관객들 혹은 시청자 여러분께 밝은 기운을 전할 수 있다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이라며 “밝은 역할만 맡다 보니 제가 이런 역할에만 갇히지 않을까 걱정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다. 그런 우려를 깨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연기를 몇 배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아직 해본 역할이 많지 않아서 뭐든 다 해보고 싶어요. 이것저것 하다 보면 제게 더 잘 맞는 역할을 찾을 수 있겠죠. 편식하지 않는 배우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러면서 유인나는 배우 김혜숙·이미숙을 자신의 ‘롤 모델’로 꼽았다.

“김혜숙·이미숙 선생님처럼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연기를 하고 싶어요. 평범한 얼마 역할부터 극단적인 악역까지 어떤 역할을 맡겨도 무리없이 소화해내는 연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연출뉴스



## “친절한 승우씨 잊어주세요”

‘나는 아빠다’ 김승우

“연기에 갈증을 느꼈던 시기에 악역을 맡게 됐습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여한 없이 연기했습니다.”

영화 ‘나는 아빠다’에서 악역에 처음 도전한 김승우는 이 영화의 제작보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영화는 딸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비리형사가 된 종식(김승우)과 종식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쓴 채 팔마저 잃게 된 상민(손병호)의 대결을 그린 액션물이다.

폭력 조직의 뒤를 따르며 뒷돈을 챙기는 비리 형사 종식. 딸 민지(김새론)의 심장이식 수술비 마련을 위해 더 큰돈이 필요해진 그는 장기매매조직의 두목인 황사장의 살인사건을 은폐한다.

“처음해본 악역 여한없이 연기

이미지 안맞다고? 영화보면 알 것

‘아저씨’완 달라...극장서 확인하세요”

종식 때문에 억울한 살인범 누명을 쓴 채 복역중인 상민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종식에 대한 복수를 결심한다.

김승우는 “어렸을 적부터 선배나 업계 관계자로부터 ‘너는 악역을 못할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실제로 악역을 맡은 적도 없다”며 “연기에 대한 갈증이 생긴 시점에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받게 돼 기뻐했다. 행복한 마음으로 촬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한 없이 연기한 만큼 연기를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액션 장면과 관련해서는 “아주 편안한 액션은 없었다.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액션을 했다”며 “후유증으로 여지껏 무릎이 시리다”고 했다.

전만배 감독은 ‘아저씨’ ‘심장이 쎄다’와 비슷하다는 지적과 관련, “시나리오에 들어갈 때 ‘아저씨’ ‘심장이 쎄다’가 기획된다는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다. 절반 이상 찍었을 때 두 영화가 개봉했다”고 설명하면서 “두 작품과는 다른 영화”라고 강조했다.

영화 ‘아저씨’에서 원빈과 호흡을 맞춘 김새론은 김승우와 원빈의 차이점에 대해 “김승우는 진짜 친아빠같고, 원빈은 친오빠, 친삼촌같았다”고 했다. 영화는 다음 달 14일 개봉할 예정이다.

연출뉴스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평 일	영업 시간	성 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 - 15:30	25,000원	12,000원	8,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토·일 공휴일	영업 시간	성 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 - 15:3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대·소모임 가능한 500석 완비!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의 다양한 룸구성으로 쾌적하고 아늑하게 모시겠습니다.

NAVER 아이엘리시아 검색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족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